

【설립】

한국현대사에서의 궁정전투 - 『궁정전투의 국제화』¹⁾의 한국적 해석

박 태 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I. ‘궁정전투’는 한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주제인가?

한국인들에게 ‘궁정(palace)’은 왕(monarch)이 사는 이미지로 다가온다. 한국의 오랜 전통 속에서 왕은 궁정 안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 유산이 서울의 곳곳에 남아 있다. 따라서 ‘궁정전투’라는 제목만 본다면, 군주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같은 사회에서는 마치 최근 역사부문 베스트셀러인 “○○왕 독살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책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궁정전투의 국제화』가 분석하고 있는 미국과 남미처럼 군주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궁정’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군주제가 있었던 사회의 ‘궁정’과 같이 권력의 핵심부, 또는 국가전략을 만들어내는, 열려있지만 실상은 늘 무엇인가에 의해 가려져 있는 곳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무언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음모와 암투가 벌어지는 장소이다.

저자들이 책의 맨 앞에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라는 글을 통해서 “‘궁정전투’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매우 거리가 먼 주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은 한국인들이 연상할 수 있는 ‘궁정’이 아니고, 게다가 그 내용도 ‘국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저자들은 한국사회를 잘 모르고 있는가 보다. 한국 사회에서 ‘궁정전투’와 ‘국제화’

1) 『궁정전투의 국제화』, 이브 드잘레이·브라이언트 가스 저, 김성현 역, 그린비, 2007.

는 모두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미 민주화 이전 시대를 통해 한국 사회는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궁정전투'에 대한 소문들에 익숙해져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국제화', '세계화'는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무대가 되는 곳은 미국이라는 세계의 중심부에 있는 '궁정'과 그 궁정에서의 '전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전파되고 있는 중남미의 국가들이다. 따라서 '궁정'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 전투를 남미로 확산시키기 위한 매개체들, 그리고 '궁정전투'가 남미에서 확산되는 양상이 이 책의 핵심적인 분석대상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책은 그다지 관심을 끌 수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19세기 이후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체제 내에서 '중심'의 논리가 '주변부'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촘스키의 글²⁾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대한 음모를 주장하는 연구에서부터 개디스와 같이 정책문서를 통해 점잖게 그려내는 연구,³⁾ 그리고 그 매개체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새운 연성권력(soft power)에 대한 연구⁴⁾ 등 다양한 연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중심과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들을 단지 정책문서에 대한 분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집단'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모든 학문분야에서, 특히 역사학에서 언제나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2) 촘스키의 책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2007년에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한울), 『정복은 계속된다』(이후) 등이 출간되었다. 대체로 미국의 대외정책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0년대 초에 출간된 패켄햄의 책은 이러한 연구들의 선구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obert A. Packenham, *Liberal America and the Third World: Political Development Ideas in Foreign Aid and Social Sc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최근 출간된 『기रो에 선 미국』(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유강은 역, 랜덤하우스, 2007)은 폭로성의 책은 아니지만, 신보수주의의 계보를 그 내부로부터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Oxford: Oxford Univ. Press, 1982).

4)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집단을 형성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가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밝히고 싶은, 그러나 그것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Privacy)’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그 ‘개인’이나 ‘집단’이 은밀한 ‘궁정’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면 더더욱 매력적인 주제가 된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지금은 폐간되었지만, “선데이 서울”과 같은 황색 저널리즘에 더 익숙한 주제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책을 읽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체제의 관계에 대해 연상하도록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많은 것들이 이 책의 분석방법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⁵⁾ 특히 한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더더욱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궁정전투’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일까?

II. 영어 만능 사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초점의 하나는 ‘영어’의 습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어’를 하지 못하면, 어떠한 중요한 직위도 얻기 힘들고, 심지어는 좋은 학교로의 진학마저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대학교 이전의 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의 수와 비례하여 기러기 아빠

5) 이 책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연구성과가 한국 사회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예컨대 임대식의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1998,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과 정일준의 USAID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가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양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궁정전투의 국제화』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회주도계급으로서 테크노폴(technopol)의 등장은 ‘영어’ 만능 사회의 등장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테크노폴은 다음과 같다.⁶⁾

“테크노폴은 전통적인 관료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이들은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시각으로 국가와 경제문제에 접근하는 경제전문가’들이다”(64쪽).

이들은 대체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미국의 기관에서 활동하거나, 연수를 받은 공통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65쪽).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습득된 영어 능력과 국제적인 인맥은 이들이 남미 내부의 ‘궁정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들이 특히 권력에 다가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부채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유창한 영어’로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지배계급과 구분된다. 전통적인 지배계급이 대체로 가문의 배경을 통해 성장하였다면, 이들은 ‘가족 자본’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성의 습득과 동시에 형성되는 스스로의 경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경력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자신들 스스로의 전문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에 매우 잘 연결’되어 있으며, ‘영어구사능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68쪽).⁷⁾

따라서 새로운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6)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테크노폴은 전통적인 의미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와는 구별된다. 테크노크라트가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관료들을 이야기한다면 테크노폴은 경제학을 습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치와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들을 일컫는다. (322쪽)

7) 브라질의 한 법률 전문가가 집안의 ‘강권’에 의해서 영어를 습득해야 했고, 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BBC에서 활동한 이후 브라질 최대의 법률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사실(363-364쪽)은 한국 사회에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한다.

학위증'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궁정전투의 국제화』에서는 주로 '경제학'과 '법학' 분야에서 이런 '전문성'을 언급했지만(107쪽), 기실 모든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인 학위증'과 '전문성'은 새로운 엘리트 그룹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92-93쪽). 물론 이 문제는 미국식 학문을 지향하는 전통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학문권력의 형성과 함께 후술할 글로벌 스탠다드의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한 대학의 교수직에는 갈수록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마다 비율이 다르겠지만, 미국 박사학위 선호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새로 채용된 교수들에게 '영어'로 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⁸⁾

사실 학계에서 미국 중심의 학술 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제도 변화과정 속에서 정착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의 교육개혁에는 미국의 상당한 투자가 있었다. 정부기관과 주요 박애주의 재단이 동시에 지원한 이 개혁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른 학문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74-75쪽).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1950년대 미국 정부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 원조를 실시했다.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교사를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학문의 수용을 통해서 재건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서울대학교는 1950년대 중반 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통해 '미네소타 계획' 하에서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원조를 받았다. 농학, 수

8)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선발방식에 있다. 즉,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지만, 하안 피부에 파란 눈을 갖고 있는 학자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단지 사실 영어학원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 국적도 갖고 있지만, 한국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들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기도 한다.

의학, 공학 등 주로 산업화를 위한 분야에 원조가 집중되었지만, 1950년대 후반에는 행정학 분야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서울대학교는 1950년대 후반 행정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었다.⁹⁾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경영대학을 설치했다. 이 과정이 브라질 국립경제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이 분리되는 과정(179-180쪽)과 유사하며, 미국식 학문의 도입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단지 몇 개 단과대학의 신설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은 관련 학과의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미국 유학 및 연수로 이어졌다.¹⁰⁾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공정전투의 국제화』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달러화(dollarization)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일원적 헤게모니의 구축은 '영어'를 더욱 중요한 '권력'으로 부상시켜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엘리트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식민지 교육 체제 하에서 '일본어'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 층이 소위 '테크노폴'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하에서 '영어'는 갈수록 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9)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서울대출판부. 당시 미국은 한국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대학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공정전투의 국제화』의 맨 앞에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정전투의 국제화가 내면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의 하나가 될 것이다.

10) 이러한 현상을 제3세계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동독의 훔볼트 대학에 대항하는 자유베를린 대학이 미국의 지원 하에 설립되었다. Richard Pells, *Not Like Us: How Europeans Have Loved, Hated, and Transformed American Culture Since World War 2* (New York: Basic Books, 1997) 그 과정과 결과가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지라도 교육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III. 연고주의와 권위주의를 통한 국제화

미국과 남미사회의 관계에 대한 『궁정전투의 국제화』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세계체제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39쪽).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남미 사회의 다양한 전통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즉, 미국 내에서의 궁정전투가 남미 사회에서 국제화되고 있지만, 남미 사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다양하고 특수한 구조들로 인하여 국제화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남미 사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독특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에서 분석의 사례로 삼은 중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제3세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국제화의 역사 역시 특수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지배세력과의 연관 속에서 서로 다르게 구조화되는 것이다. 마치 같은 잉크를 쓰더라도 종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과 같다. ‘명백히 다른 국가권력 구조가 매우 상이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174-175쪽). 그리고 분석대상이 된 중남미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제분야와 법 분야가 국제화되는 방식과 결과에서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역시 이 책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바로 연고주의와 권위주의이다. 남미 국가들은 강한 연고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권위주의 정권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국가들이다.

『궁정전투의 국제화』는 이러한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으로 두 기관, 즉 법대와 국가의 관계에 주목했다. ‘법대는 지식과 지배 엘리트, 엘리트와 전문성 간의 위계질서를 재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26쪽). 물론 역설적이게도 이 현상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남미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법학교육 개혁운동이 실패하였지만, 법대는 궁정전투가 중남미 사회에서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왜 남미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법대'를 중요한 동맹자로 인식하였는가?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합법성'의 결여이다. 따라서 '법'의 전문가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취약한 지점을 채워주는 주요한 구성원이 된다. 또한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성과 합리성을 갖춘, 그리고 국제법과 조응하는 각 국가에서의 '법' 체계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안정성과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준다. 이러한 관계는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식민 권력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27쪽).¹¹⁾ 1980년대 소위 '신군부' 정권 하에서의 여당은 '육법당(陸法黨: 육군사관학교 + 법과대학 + 정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웠으며, 남미에서 나타난 현상이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연대'는 과거 남미 사회에서 지배세력을 구성하고 있던 '유력한' 가문과 권위주의 정권이 연결되는 고리를 마련해 주었다. 왜냐하면 유력한 가문에서는 2세들을 법대에 진학시키고 법조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도록 후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력을 재생산하고, 다른 한편으로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53쪽).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생산에 성공한 지배 그룹들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었던 개혁의 방향에 대해 저항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유력한 가문들은 남미에서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원조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던 농지개혁 정책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력한 가문들

11)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국제법과 국제법적 용어들에 천착한 더튼의 연구가 주목된다. Alexis Dudden,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Discourse and Pow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에 의해서 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미에서 일어난 『궁정전투의 국제화』 과정과 한국에서의 상황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국에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연고주의와 권위주의는 남미에서 나타나는 새롭지만 결코 새롭지 않은 지배세력의 형성과 유사점을 갖는다. 또한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도 연고주의는 해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남미와는 달리 냉전체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식민지를 경험했고, 냉전체제가 시작되자마자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남미와 한국 사회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별성을 형성시켰다. 즉, 한국의 유력한 가문은 식민지 시기 이전의 지배세력과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통시대의 지배세력이었던 ‘지주’는 이미 사라졌으며, 이들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 역시 실패했던 것이 한국현대사의 출발 지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유력한 가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재 많은 황색 언론들이 한국 사회에서 ‘유력한 가문’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기실 이러한 가문들은 대체로 20세기에 들어와서 형성된, ‘가문’이 아닌 ‘가족’들이다. 그리고 이들 유력한 가족들은 식민지 지배권력과 1948년 이후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법대 및 의대라는 트레이드 마크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벌’의 가족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이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 지속된 ‘유력한 가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는 남미사회에서 나타났던 ‘국제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테크노폴’을 통해서 새로운 연고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최고지도자들이나 정치의 상층부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유력한’ 가족 출신의 인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¹²⁾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농촌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¹³⁾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유력한’ 가족과 새로운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테크노폴이 형성되는 과정은 ‘공정전투’가 ‘국제화’하는 과정과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¹⁴⁾ 이미 한국사회 상층부의 많은 부분들을 새로운 세력들, 특히 테크노폴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위 상승은 연고주의와 권위주의가 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중들의 강력한 요구와 서로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조건에 기반한 연고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IV. 공정 이데올로기의 국제화

몇 년 전 한국에서 부패와 관련된 제3차 국제포럼(Global Forum)과 제11차 반부패 세계대회(the 11th 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 IACC)가 개최되었다. 국제포럼은 1999년 미국 워싱턴, 2001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이어 한국에서 3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반부패 세계대회는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로 격년제로 개최되었다. 서울대회는 계속되는 도전(ongoing challenge)에 대한 안전장치의 통합(safeguard integrity)과 공유된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을 통해 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항할 긴급성을 선언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런데 회의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반부패’를 의미하는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두 회의는 그 시작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정부의 지

12) 윤보선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가족’ 출신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왕가의 혈통을 잇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력한 왕실 가문은 아니었고, 군사정부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유력한’ 가족이나 ‘화려한’ 경력이 한국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데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다. 멕시코의 대통령 중에는 미국 유수의 대학 출신자들이 있었던 반면(65쪽), 한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13) 지도자나 엘리트들이 과거의 지배세력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은 로스토夫的 눈을 통해 보면 미국식 근대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기도 하다. 참고, 2006, 『우방과 제국』, 장비, 173-176쪽

14)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유력한 가족’의 2세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연고주의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와 지원 하에서 개최되었지만, 이 회의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소위 ‘북반구’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반구’의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소위 ‘남반구’에서 온 전문가들은 부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특히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전통 속에서 ‘미풍양속’과 ‘부패’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북반구’에서 참석 한 사람들의 관점은 이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유엔과 미국은 2001년 이후 중요한 이슈가 된 테러와 관련하여 돈세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¹⁵⁾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역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있다.

반부패의 문제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중심으로 한 『궁정전투의 국제화』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 책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것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금융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3쪽).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금융위기에 처했던 시기의 상황을 보면,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주장을 따른다면 위에서 언급한 반부패 세계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가 워싱턴 컨센서스의 틀 안에서 작동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시장과 성장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한 때 민주화를 위한 열기로 인해 ‘성장’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

15)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보장법’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참고, 2007, 『원형과 변형』, 229-230쪽.

지만, 한국근현대사에서 '성장'의 문제는 개화에서 계몽으로, 다시 경제개발과 근대화로, 그리고 세계화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특히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다.¹⁶⁾

『공정전투의 국제화』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문제를 특히 브라질과 칠레의 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공정'에서는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신고전주의와 공공선택 이론의 주창자들이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한 경제기관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이들의 신념은 '유창한 영어실력과 기술적인 경제학, 미국 경제학 공동체와의 관계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학계에서 활동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적 공감에 의지하면서 미국을 찬양하는' 중남미의 테크노폴에 의해서 국제화되었다. 이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표들이었으며(92쪽), 외채 위기의 처리과정은 '국제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하였다(167쪽).¹⁷⁾

“민간은행에서 풍부하게 제공된 제3세계에 대한 차관은 공공 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여 주었다. ... 외채위기를 해결하는 전략을 강요하기 위해 인기가 없었던 세계은행과 IMF의 공적 자금을 활용했다. 시티은행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은행들에게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다. ... 또한 어떻게 해서든 외채 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 따름이라고 가장해야만 했다. ... 그것의 명백한 수혜자는 오로지 은행들뿐이었다. ... 이런 금융구제작전은 IMF와 세계은행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
- 16) 최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이 '부자'가 되는 것이며, '부자 아빠', '돈 버는 방법' 등이 베스트셀러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 17)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1980년을 전후한 시기 외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책 변화의 문제이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중가격제도라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형성시켰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안정화정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안정화 정책을 위한 논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소위 서강학파와 미국에서 유학한 경제학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비록 이 시기를 통해 신고전주의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작동원리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980년대 초에 채택된 안정화 정책은 신고전주의적 원칙이 점차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확산 시기는 남미와 한국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줄고, 2004, 「1970,80년대 경제정책 주체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담론」,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참조.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구조개혁(금융거래의 자유화, 민영화, 국가개혁 등)을 채택하도록 주장할 수 있게 해줬다”(168-169쪽).

이러한 설명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가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개혁을 강제하는 서로 모순적인 원인과 해결방식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과정은 단지 ‘궁정’에서 ‘주변부’로 내려오는 과정만이 아니다. 오히려 역수입의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궁정혁명은 국내논리 뿐만 아니라 국제논리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162쪽). 테크노폴의 특성을 보이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영향력 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었던 1950년대에 ‘국제화’에 투자했다. 이들은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의 고향인 칠레의 산티아고 가톨릭대학 등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89-90쪽), 이들이 만들어낸 칠레 출신의 시카고 보이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¹⁸⁾을 지지한 그룹들로 하여금 20세기 후반의 첫 번째 시장혁명을 경험하도록 했던 것이다(155쪽). 결국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국제화의 경험을 통해 궁정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궁정 이데올로기의 다양한 측면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궁정에서의 이데올로기들이 경합하기도 한다. 『궁정전투의 국제화』의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인권 문제는 모두 궁정의 주요한 논리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인권 문제에 대해 ‘상징’성을 부여하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폭로이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18)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신고전주의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않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들에 대한 『궁정전투의 국제화』의 분석을 보면, ‘인권’이라는 담론이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확산’ 문제와 함께 주요한 궁정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다.¹⁹⁾

“해게모니 과정은 역설적인 결과들을 산출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냉전적 목표들이 자신들에게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인권운동가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의해 결실을 맺게 됐다”(39쪽).

『궁정전투의 국제화』는 주로 포드재단의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포드 재단은 ‘인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 CIA와 대립하기도 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운동, 소수인종의 보호,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으로 그 지원대상을 이동시켰다(72, 101, 192, 254쪽). 이들의 활동은 남미의 인권운동가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냉전체제 종식 이후 권위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9장).

그러나 궁정이데올로기가 신고전주의와 인권에 기초한 경제, 정치의 두 가지 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다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와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고전주의 이전의 케인즈주의에서 주장하던 것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신고전주의적인 질서를 강화해주는 방향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10-14장). 새로운 사법개혁은 이제 미국의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지원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있다. 1991년의 『세계발전보고서』는 국가기관들의

19) 국제기관에서 제기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궁정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책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논리의 한 축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권’이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이 식민지화되는 시기를 전후해서 일본정부는 식민지 권력에 의한 사법제도의 변화에 의해 한국 내부의 인권이 얼마나 도덕적 차원에서 개선되었는가를 선전하는데 혈안이 되었고, 이것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것을 합리화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Dudden, *ibid.*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민간 부문의 발전을 위해 법률적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311쪽),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서: 제도의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범세계적 금융 통합에 있어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들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312쪽).

이것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역설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던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도사들은 이제 ‘정부가 경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힘의 작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318쪽)는 스스로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반부패세계대회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결론의 한 축으로 설정한 것은 궁정전투의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궁정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전이를 의미하는가? 저자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13-14쪽)는 말로써 겉으로는 변화해가는 궁정의 이데올로기들이 실제로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으며, ‘중심(core)부’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선언하고 있다.

V. 세계는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궁정전투의 국제화』는 미국 내 중심부(궁정)에서 다양한 과정(전투)을 거쳐 형성된 헤게모니가 남미(주변부)의 중심부(궁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재화(또는 국제화)하는가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400회가 넘는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의 취합을 통해서 저자는 지식사회학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법학과 경제학을 넘나드는 다학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는 쉽

지 않다.

이 밖에도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미덕을 보여준다. 첫째로 하나의 사상이나 조류가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서로 다른 양상을 띠면서 수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각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들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외화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읽는 이로 하여금 살아있는 역사를 느끼게 한다.

둘째로 궁정전투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인공들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이 책의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 중 일부는 한국현대사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은 인물들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라울 프레비시는 1950년대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소개되었고, 네덜란드의 틴베르헨은 1950년대 경제개발에 관한 전문가로서 초기 한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세계은행에 연수를 갔을 때 경제개발계획의 작성방법을 직접 강의했다. 폴 호프만과 데이비드 벨은 경제협조처(ECA)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처장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개발원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과다한' 원조의 이유를 강변하기도 했다. 델레스는 한국전쟁 직전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고,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임명되어, 1950년대에 군사원조 문제로 한국을 몇 차례 방문했다. 1960년대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설계한 로스토와 조지 볼은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에서 박정희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유진블랙은 한국이 창립 이래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설립을 뒷받침했던 존슨 행정부의 숨은 일꾼이었다.

셋째로 다양한 기관의 활동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관들인 IMF, 세계은행, 씨티은행, 포드 재단, 그리고 엠네스티는 이 책의 주인공들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한국전쟁 당시 세균전을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낸 단체였던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J)는 이 책에서 '조연'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 일방적일지라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미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첫째로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세계체제론적 시각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²⁰⁾ 주변부 국가의 구조에 따라서 중심부의 논리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내면화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세계체제론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방향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칠레에서의 예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역방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며, 동시에 중심부에서 뿌려놓은 씨앗의 피드백에 지나지 않는다. 중심부에 의해 촉발된 남미의 사법개혁이 그 의도와 달리 주변부 자체의 문제로 인해 그 결과가 중심부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사법개혁의 추진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주입된 일방적인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체제론에 기초한 다른 연구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는 ‘궁정전투’가 ‘국제화’되는 과정에 대한 주변부의 대항담론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실패’는 주변부의 국가구조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지체’ 또는 ‘변형’이 일어날 뿐 대항담론에 의해서 초래되는 실패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²¹⁾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비록 그것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일지라도 약소국에서 나타나는 대항담론의 역동성은 강대국의 논리가 약소국에 주입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때로는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1980년을 전후한 이란의 사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로 ‘궁정전투’에 대한 분석이 다각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책은 ‘궁정전투’를 통해서 대외정책의 중심 담론이 변화하거나 또

20)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성찰적 사회학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책에 대한 다른 서평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홍성민, 2007, 「지식이전과 정치 변동」, 『역사비평』 여름호.

21) 주변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중심부 논리의 변형과 지체는 ‘지역화(localization)’ 또는 ‘토착화(indigenization)’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변부의 주체들은 피동적인 조연이 아니라 중심부의 논리에 맞서 그 내용을 바꾸거나 변형하는 주인공이 된다.

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논리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부 내부, 또는 주변부로부터 발생하는 동인과 기원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 문제가 이 책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동인과 기원을 밝히는 문제는 '공정전투'의 성격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물론 중심부에서의 논리가 왜 주변부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적용될 수 없는가에 대한 분석의 한 측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정전투에서 제시되는 논리들을 소위 '제국주의'적 논리로 모두 치환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이분법적인 분석에 그치게 되며, 공정 논리의 복잡하면서도 다면화된 성격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전투의 국제화』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결국 중심부의 헤게모니로 보고 있지만, 이 담론들은 모두 제3세계에서 중요한 대항담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이 논리들이 주변부 국가의 '공정' 속으로 용해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피지배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인권'과 '민주주의'가 갖는 함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셋째로 음모론적 서술이 갖고 있는 한계이다. 어쩌면 이 점이 이 책이 갖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 '공정전투'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큰 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치 노암 촘스키의 책에서 볼 수 있는 듯한 거대한 '음모'와 '피즐'이 책의 곳곳에 녹아 있다. 중심부의 '공정'은 남미에서의 차이를 이미 고려하고 있었으며, 중남미에서의 '국제화'는 그것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못했든간에 '공정'의 계산과 기대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든간에 그것이 때로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 연구의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음모론적 시각은 그 논리적 명확성과 상쾌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의 실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소설'적이다.

넷째로 이 책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차이가 결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전이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한데,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심부의 ‘궁정’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결코 ‘질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테크노폴의 등장은 단순한 지배 그룹의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질적인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사회 내에서 전통적인 연고주의에 기반한 지배세력으로부터 스스로의 전문성에 의해서 담보되는 지배세력으로 전이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남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궁정전투의 국제화』는 한국의 근현대 역사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즉, 한미관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궁정’의 역사, ‘전투’의 역사,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의 ‘국제화’의 역사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분석들이 궁극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